

종합·해설

민주 “내달까지 교섭단체 구성”

유선호·이인제 의원 입당 거론... 본인들은 부인

범여권 분열 가속화... 4개 그룹 분화될 수도

4·25 재보궐 선거 이후 범여권은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데 반해 통합 파트너인 민주당은 독자적 교섭단체 구성에 나서는 등 상승가를 치고 있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전남 무안·신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의석수를 12석으로 늘린 것은 물론 호남 민심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복심에 등에 업은 민주당은 통합신당 창당 추진과는 별개로 내달 중순까지 독자적인 교섭단체 구성에 나서고 있다.

일단 이달 중순까지 열린우리당과 국민중심당 일부 의원 등 총 10여명이 이르는 의원들의 영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9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선 입당보다는 영입 형식을 도입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신당 창당에 나선다는 명분을 부

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독자적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박 대표가 열린우리당 및 범여권 인사들을 폭넓게 접촉하고 있다”며 “다음달 2일 박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은 물론 나아가 통합신당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8석의 의석이 더 필요한 상황. 정치권에서는 당장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유선호 의원과 국민중심당의 이인제 의원의 입당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예정인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민주당 입

당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독자적인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할 경우 소위 범여권 대통합 구도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유선호 의원이 당장 입당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다 입당 교섭이 진행중인 의원들의 실체도 명확하지 않아 민주당의 독자적 교섭단체 구성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유선호 의원은 이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탈당 의원들이 모여 범여권 대통합을 위한 전 단계로 통합교섭단체를 만드는 방식에는 찬성하지만 당장 입당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범여권은 오히려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선 지난 27일 열린우리당 정대철 고문과 김덕규 전 국회의장, 정봉호, 강창일, 한광원, 이원영 의원 등은 회동을 갖고 당의 발전적 해체를 가속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이 5월 중순께 집단 탈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김근태, 천정배 그룹은 개혁 블록을 형성하고 있고 정동영 전 의장 측은 정운찬 전 총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대선주자 연석회의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독자 창당에 나서고 있는 통합신당모임도 진통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우유근, 전병헌 의원 등 4~5명의 의원들이 독자 창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독자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교섭단체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강하다. 또한, 교섭단체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내부 진통에 따른 자체 동력이 크게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이념성향, 지역정서, 비노·친노 등의 기준에 따라 범여권이 4개 그룹 이상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이 29일 서울 영창동 당사에서 가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강재섭 대표의 입당 표명이 이르면 30일째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쪼개지나...

李-朴, 재보선 참패 지도부 책임론 갈등 악화 강대표 오늘 쇠신안... 봉합 여부 분수령 될 듯

■한나라당 최고 위원 9명 거취 입장

이름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
강재섭	최고위원단 현행 유지 희망이 없게 된 이끌겠다
이재오	김대표가 미련하는 쇠신안 보고 거취 결정
강창철	4월 26일 사퇴
전여욱	4월 26일 사퇴
정형근	김대표가 미련하는 쇠신안 보고 거취 결정
김형오	성각해보겠다. 김대표 쇠신안 결심 기대
전재희	지도부 총사퇴해야 마땅
권영세	강재섭 체제와 운영을 같이하겠다
한영	김대표 체제와 운영을 같이하겠다

4·25 재보선 참패에 따른 지도부 사퇴부더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지는 책임론을 둘러싸고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진영 간 갈등이 악화되면서 한나라당의 분열 위기가 조조되고 있다.

일단 강 대표가 30일 제시할 당 쇠신안의 내용에 따라 한나라당의 갈등 국면을 관가름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시장장은 “알맹이가 없다”며 쇠신안을 거부하거나, 역으로 박 전 대표측이 쇠신안 내용에 불만을 품고 ‘지도부 총사퇴’라는 비상상황으로 내몰릴 경우 분열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관련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강 대표가 현재

사퇴부더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30일쯤 기자회견을 하고 당 쇠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당이 현재의 상황에 이른 것은 의원 출 세우기 등이 가능한 현행 경선 방식이 문제라며 강 대표의 쇠신안에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수리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표 측은 당 쇠신안을 발마로 이 전 시장 측이 경선 방안 등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 질 것이며 결국 이는 당을 깨는 것 아니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분당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한편, 사퇴 의사 불모지 않은 최고위원 김용태 김형오 원내대표는 쇠신안을 기다려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으며 정형근 최고위원은 강 대표의 쇠신안을 보고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직인 권영세, 한영 최고위원은 “지금 도망가는 것은 정도가 아니며 강재섭 체제와 운영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盧 “내 소신은 내각제 개헌”

개헌 발의 연설 원고 공개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정치권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대통령 중임제 개헌발의를 위해 준비해왔던 국회연설 원고를 전격 공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개헌 발의의 유보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하면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될 뻔한 국회연설 원고를 서랍에서 꺼내 인터넷에 올렸다. 노 대통령은 이 연설 원고에서 여소야대의 폐해를 열거하면서 “여소야대로 인한 국정의 비효율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각제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원래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이를 개헌안으로 제기할만한 상황이 아니므로 개헌안으로 내놓지는 않는다”며 내각제 지지론자임에도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 연설에서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의 현 정부 임기에 개헌 반대 입장에 대해서 “발바꾸기이고, 이는 정략적 계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 대통령은 이 처럼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연설 원고에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 관해 입장을 바꾸었듯이 개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 실현의 ‘희망’도 담았다. /연합뉴스



할쓰는 한덕수 총리 28일 오후 충남 아산 현충사내 활터에서 열린 47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학 공도대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사(始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자세력 ‘첫발’ 내딛는 손학규

오늘 ‘선진평화포럼’ 발족식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지도모임인 ‘선진평화포럼’ 발족식을 갖고 독자세력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한나라당 탈당 후 4여일간 ‘정치적 시베리아’에서 암중 모색해온 그는 선진평화포럼을 통해 ‘좌우를 넘어서서 새로운 중도정치’의 깃발을 꽂고 이에 동의하는 정치권 외부 지식인 및 전문가 집단을 규합한다.

하지만 이 포럼 발족 이후 손 전 지

사의 행보는 눈에 띄게 정치적인 색깔을 띠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우선 손 전 지사는 첫 방문지로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를 선택했다. 5월 1일 전남대 특강을 하기로 한 것. 또 이후 대구와 부산에서 잇따라 특강을 한다. 이제까지 그의 특강이 ‘중도정치’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부터는 정치세력 규합을 위한 적극적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인은 반한나라 대통합 원해”

광주 은 김근태 전 의장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지난 28일 광주시 관공구 송산유원지에서 열린 ‘광주민주주의학 학회’ 행사에 참석해 “1980년 5월 어디에 있었는지 불분명한 사람들, 중산층과 서민들을 옹호해야 할 때 불명확한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었다고 나

서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해 평생 노력해 왔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편에 확고히 서왔던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또 “특정지역을 매개로 한 소모적 움직임은 특정지역의 고립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호남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민주

세력의 반(反)한나라대통합”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1970~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사들이 마련한 것으로 김 전 의장은 ‘옛 동지’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최근 단서를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천정배 전 원내 대표와도 만나 인사를 나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락잔금대출 전문은행
경락잔액의 100%까지, 간단한 심사로 OK!
법조타운 1층(법원 앞) ☎ 062)233-0717
여수지점 ☎ 061)660-0114
순천지점 ☎ 061)724-3399

상업저축은행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06타경 39605	1	나주시 금천면 오갈리 158-5 대일주택 1층	다세대	31,000,000	토지에 관하여 별
		102호 57.42㎡		31,000,000	등기기 있음
[대지/임야/전답]					
2006타경 24245	1	나주시 봉황면 덕림리 126-17 1687㎡ 지상에	전	12,652,500	농지취득자격증명
		에 629.4㎡ 있음 [묘지기권성립(여지) 있음]		12,652,500	필요
2006타경 26784	1	광산구 수완동 58-9 2232㎡ 제1외 비닐하우스 및	전	468,7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우수및철구조물[건사] 매각대상제외.		468,720,000	필요
	2	동소 58-19 36㎡	전	8,64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3	동소 58-20 4380㎡ 제1외 비닐하우스 및	전	1,051,2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철구조물[건사] 매각대상 제외.		1,051,200,000	필요
	4	광산구 수완동 58-25 5148㎡ 지상에 매각	전	1,158,3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되지 않은 제1외건물 있음. 지상의 수목		1,158,300,000	없음
		포함함.			
2006타경 31199	1	나주시 이창동 370-5 1382㎡	답	20,73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730,000		20,730,000	필요
	2	동소 370-6 4000㎡	답	60,0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60,000,000	필요
2006타경 41639	1	영광군 법성면 덕림리 342-6 1590㎡	답	21,23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1,238,000		21,238,000	필요
		동소 342-7 1280㎡	답	21,238,000	필요
				21,238,000	필요
					필요
2006타경 43000	1	곡성군 옥곡면 을사리 156 182㎡	대	12,012,000	12,012,000
		곡성군 삼기면 청계리 256 490㎡	목장용지	27,864,900	일괄매각, 256-4㎡
		동소 256 128㎡ 제1외 주택 등 345㎡ 이	목장용지	27,864,900	일괄매각, 각 농
		동소 256-4 1879㎡	답		지상에 분묘 4기
					있고 [묘지기권
					성립(여지)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06타경 44096	1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795 531㎡	전	5,999,000	5,999,000
		동소 795-2 326㎡	전	5,999,000	5,999,000
		영광군 모향면 운달리 171-4 570㎡	전	14,310,000	14,310,000
		동소 171-6 1369㎡	전	14,310,000	14,310,000
		동소 171-7 446㎡	전		
					171-6 지상에 분묘
					3기 있음 [묘지기
					권성립(여지) 있음]
					필요
2006타경 44294	1	2,202,000	답	2,20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202,000		2,202,000	필요
2006타경 45426	1	나주시 남평면 서산리 63 2357㎡	답	70,276,000	70,276,000
		동소 85 172㎡	답	70,276,000	70,276,000
		영광군 모향면 월말리 798 1021㎡	전	25,481,500	25,481,500
		동소 829 2139㎡	전	25,481,500	25,481,500
		동소 879 387㎡	전		
		동소 881 995㎡	전		
		동소 882 1223㎡	답		
		동소 955 353㎡	목장용지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06타경 32352	1	서구 지평동 1213-4 7층 701호 553.73㎡	근린생활	1,185,000,000	1,185,000,000
		1,185,000,000	시설	1,185,000,000	1,185,000,000
					임차인있음, 유치
					권고있음

2007. 4. 3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미숙**